

지역 소식통

부안 주산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주산면은 지난 28일 열악한 저소득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번 사업의 대상자는 심한 지적장애를 가진 저소득 1인가구로 주생활공간에 곰팡이가 다수 발생하여 악취와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주산면은 마을이장의 제보를 받고 발 빠르게 지원계획을 세워, 대상자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사분란하게 곰팡이 제거 및 도배를 진행하였다.

주산면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행정 연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고, 대상자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말했다.

정춘수 주산면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이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고창학 아카데미 온곡탐사르습지 둘러보기

고창군이 지난 24일 군민과 함께 하는 '2022년 고창학 아카데미 중 8회차 탐방프로그램'으로 고창온곡탐사르습지 둘러보기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고창온곡탐사르습지 둘러보기'는 '온곡습지생태관람회' 신영순 사무국장에 의해 협장을 통한 탐방이 진행되었다.

신영순 사무국장은 "온곡습지는 멸종 위기의 야생동물들 비롯한 희귀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다"고 말했다.

이날 습지 둘러보기는 △온곡습지생태공원 △조류관찰대 △생태물방울 등이 있는 '온곡습지 코스'를 걸으면서 온곡습지의 사회적, 지질학적 생성 배경과 주요 식생 등을 살펴보았다.

향후 고창학 아카데미의 프로그램은 △고창의 들녘과 강신정일, 우리땅길기 이사장, △고창 물줄기의 시원을 찾아서(이병열, 고창문화연구원 박사) △고창 자연경관과 6차산업의 현재·미래, 상하원인 대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국립기관 유치해 고창갯벌 극대화”

국내최고 생태 전문가들 초청, ‘고창갯벌 생태계 보전과 활용’ 포럼

국내 최고의 생태·철새 전문가들이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에 국립기관을 유치해 고창 갯벌만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창문화회관에서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1주년 기념해 ‘고창갯벌 생태계 보전과 활용’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날 환경·생태분야 전문가들은 고창갯벌의 무궁무진한 장점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김영섭 센터장(군산대 전북씨그랜드센터)은 “고창갯벌은 194종의 저서규조류를 비롯해서 서해 고유종인 범게 등 희귀생물의 서식처 기능과 전국생산량의 75%를 차지하는 바지락 등 수산물 생산

지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밝혔다.

조삼래 명예교수(공주대)와 이한수 소장(한국환경생태연구소)도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 등의 서식지인 고창갯벌은 서해안 바닷새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며 “체계적인 연구·보존활동을 위한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하철 교수(전남대 생물학과)는 “고창갯벌 조류와 어민의 상생방안” 발표에서 “고창은 갯벌-염습자염전-내륙습지로 이어지는 해양·육상 생태계 생물 서식공간 보호·복원의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며 “고창 갯벌의 자연자원과 생태계 서비스, 생태문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평가 체계 마련이 중

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사전행사로 고창군, 고창컨트리클럽, 고창군기업인협의회, 고창생태환경보전협의회, 온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창갯벌의 보존관리를 위해 힘쓰기로 했다.

또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유치를 위한 군민 결의문 낭독과 500여 군민이 참여하여 간절함 염원을 담은 피켓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삼덕섭 고창군수는 “당초 폐염전 부지엔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설 계획이었지만 이를 막아내고 생태를 복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곳에 본부가 들어오면 그 상징성은 다른 지역을 압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은 지난 27일, 부안 소노벨 변에서 관내 마을 이장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2년 이장단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 담당”

부안군, 2022년 이장단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부안군은 지난 27일, 부안 소노벨 변에서 관내 마을 이장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2년 이장단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부안군에서 실시하는 이장단 대상 교육 과정으로, 지역리더로서 역량강화를 통해 행복한 지역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기획되었으며,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이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전문 강사를 초청해 이장의 지방분권시대의 이해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장의 직무를 이해하고 역할 변화에 따른 우리 동네 문제 발굴과 해결방안을 고민해 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권익현 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장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특히, 지속가능한 미래100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직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부안군 이장협의회 김재희 회장은 “오늘 행사가 우리 이장님들의 화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직무역량을 향상시켜 부안 지역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군은 이장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이장 역량 강화 워크숍을 비롯한 이장 상해단체보험 가입, 이장단 선진지견학 등을 매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장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군민과 공직자가 서로 신뢰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군정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2023년 재해 예방사업 예산 468억원 확보

자연 재난 없는 안전도시 만들기

정읍시가 행정안전부 2023년 재해 예방사업으로 총 46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자연 재난 없는 안전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기존 복구 위주 사업에서 예방 사업 위주로 전환되는 정책 기조에 맞춰 자연재해 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에 확보한 사업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45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78억 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45억 원이다.

먼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집중호우 발생시 잦은 침수가

발생했던 산외면 동곡천에 146억원, 금봉동 금봉천에 9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수성동 및 정명동 일원에 178억 원을 투자해 우수저류시설 설치 및 우수관로 신·개설을 통해 집중 호우시 정읍시 가지의 침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산내면 매곡리 일원의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구에 대해 45억 원을 들여 낙석 등의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 지역은 알반이 국지도 55호선까지 침범해 통행 주민과 차량이 위험에 노출돼있고 특히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시 낙석의 우려가 큰 지역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매년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재해에 대한 방재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재해 예방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시는 하천의 수위를 실시간으로 계속하여 홍수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인근 주민을 대피시킬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 재난 및 기상특보의 실시간 전파를 위한 재난연경보시스템 등을 확대 설치하는 등 재난 예방에 힘쓰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제8회 정읍시 재능나눔 축제’ 성공적 개최

제8회 정읍시 재능나눔 축제가 시민 1,000여 명이 방문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24일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 광장에서 진행된 축제는 정읍시자원봉사센터 주최로 개최됐다.

축제에는 최재용 부시장, 영연선 전 북도의원, 이상길 정읍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석환승기순 시의원, 이현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장, 은성수 정읍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 내빈이 참석했다.

이날 신비람 디스코 장구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축제장에서 20여 재능기

부 단체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부스를 운영했다.

특히 자녀를 동반한 가족은 네일아트, 로봇과학, 타로카드, MBTI 성향 분석에 관심을 보였으며 어르신들은 구강검진, 시력 측정 및 돋보기 제작 등에 많은 참여를 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식재, 인바디 측정, 귀바사 요법, 친환경 제품 만들기, 다양한 공예체험 등이 있어 남녀노소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매년 축제에 참여했다고 밝힌 시민은 “아이들이 매우 즐거워해 행사가 열릴 때마다 가족끼리 참여했는데 최



정읍시가 28일 드론을 활용해 초산동 신기메이플아파트(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정읍시, 드론 활용해 공동주택 안전 점검 나서

정읍시가 28일 드론을 활용해 초산동 신기메이플아파트(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 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이학수 정읍시장과 민간합동 점검반인 재난예방 민간예찰단과 민간전문가 그리고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이날 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 시설인 신기메이플아파트를 점검했다. 신기메이플아파트는 2002년 5월에 준공돼 14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이다.

안전 점검은 각종 점검 계속 정비와 드론을 활용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

려운 시설물의 상부와 벽체 균열 등을 점검했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 드론 등 각종 과학시설 점검 장비를 활용해 내실 있고 정확한 안전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이번 점검이 재난예방 및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대한민국 안전대진단을 위한 집중안전점검(국가안전대진단)을 6개 분야 93개소에 대해서 전기 가스 소방, 건축분야에 대해 민간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